

Central Coast Baptist Association

2015 Prayer Campaign: Returning to Holiness



거룩으로 돌아가자 : “개인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가이드”

- 그레고리 프리젤 박사 -

저자: 그레고리 프리젤 박사 (Dr. Gregory R. Frizzell)

프리젤 박사는 이십 여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여러 전국적인 기도 모임에 강사로 섬겼다. 평생에 걸친 연구는 기도, 전도, 그리고 영적 각성에 집중되어 있다. 그 방면에 대한 책만도 20권이 넘는다. 지난 4년간, 저자는 기도와 영적 회복을 촉구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저자는 현재 오클라호마 침례연합과 남침례회 국내선교부의 (NAMB) 기도와 영적 각성 스페셜리스트로 섬기고 있다. 저자는 또한 서른 가지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는 자료들과 책들을 나누어주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자이자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의 아내인 샌디는 소중한 기도 파트너로서 또한 위대한 사역의 동반자로 함께 섬기고 있다.

회개가 필요한 7가지 분야들 (7 Categories of Cleansing)

- 1) 머리로 범하는 죄들 (Sins of Thoughts)
- 2) 마음 가짐에서 나오는 죄들 (Sins of Attitude)
- 3) 말로 범하는 죄들 (Sins of Speech)
- 4) 관계에서 오는 죄들-다섯가지 (Sins of Relationship)
- 5) 명령을 어기는 죄 (Sins of Commission)
- 6) 말쑥을 무시하는 죄 (Sins of Omission)
- 7)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을 의지하는 죄 (Sins of Self-Rule & Self-Reliance)

1) 머리로 범하는 죄들 (Sins of Thoughts)

a.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는 것이다.

1. 구원의 확신이 없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하려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
2.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때,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내어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물리치신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
3.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계속해서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에 대하여 방황하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b. 의심의 죄를 극복하고 당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구절들

1.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2.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3. 롬 10:9-10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4.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c.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기초를 놓는 일이다.

1.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 골 3:1-3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3. 시 1: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4. 시 119:15-16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5. 마 6:33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7.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생각해 볼 질문들:

- 1) 나는 나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흔들리고 있는가?
- 2) 믿음보다 의심이 드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가?
- 3) 정결하지 못한 음란한 생각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 4) 잘못된 생각들을 부추기는 출판물들을 본 적이 있는가?
- 5) 영적인 생각보다 세상적인 생각들을 훨씬 많이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 6) 분을 내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들지는 않는가?
- 7) 용서하지 못하거나 쓴 뿌리가 올라오는 생각으로 사로잡히지는 않는가?

2) 마음 가짐에서 나오는 죄들 (Sins of Attitude)

a.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짐이 어떠한가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다.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를 말이다. 애정과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태도가 우리 죄악의 근본이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떠받들기가 쉽기 때문이다.

1. 계 3:15-16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b.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이런 태도가 생긴다...하나님은 필요없어. 그리고 곧이어 '내가 하나님이야'로 바뀐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구세주나 그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겸손해질 필요가 있고 회개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1. 시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2. 빌 2:3-4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 빌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1)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2)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3)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c. 우리가 용서 받은 존재이고, 그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게 된다.

1. 골 3: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2. 엡 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생각해 볼 질문들

- 1) 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 미적지근하진 않은가?
- 2) 나는 다른 이들을 향해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지는 않은가?
- 3) 내가 질투하고 있거나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는가?
- 4)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믿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 5) 비판적이거나 못되게 구는 성향이 있지 않은가?

3) 말로 범하는 죄들 (Sins of Speech)

a.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돌아보신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몰라서 말 때문에 범하는 심각한 죄들을 범하게 된다.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보다, 끌어내리는 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하기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외면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

1. 마 12:36-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2. 엡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 엡 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 골 3: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5. 고전 10: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6.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7. 약 3:9-10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생각해 볼 질문들**

- 1) 나는 부적합한 표현이나 비속어 같은 것을 입에 담은 적이 있는가?
- 2) 나는 험담을 하거나 이상한 말들을 하는가?
- 3) 나는 쉽게 과대표현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는가?
- 4) 나는 불평 불만을 표하는 습관이 있는가?
- 5) 나는 분열을 초래하는 어떤 형태의 말이나 이메일을 한 적이 있는가?
- 6) 비판적이거나 정죄하는 말과 이메일을 하는 습관이 있는가?

4) 관계에서 오는 죄들-다섯가지 (Sins of Relationship)

a. 다른 이들을 공격하거나 상처준 것

1. 마 5: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b. 당신에게 상처준 이를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

1. 마 6:14-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2. 마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c. 부적절한 관계들

1. 마 5:27-28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3. 고전 6:18-20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d. 교회 출석에 신실하지 않는 것

1. 히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 고전 12:21-26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3. 고전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e. 건강하지 않은 가족 관계들

1. 엡 5:22-24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 엡 5:25-28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 엡 6:1-4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 마 18: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생각해 볼 질문들

- 1) 내가 상처 준 이들 가운데 아직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대가 있는가?
- 2) 내가 다치게 했거나 상처를 준 대상과 완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 3) 다른 이를 향해 분을 품거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가?
- 4) 아버지로서,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가?
- 5) 어머니로서, 가족들을 향한 희생을 기꺼이 하고 있는가?
- 6) 부모님을 존경하고 보살피는 일을 잘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 7)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을 한 적은 없는가?
- 8) 쓸데없는 말이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과 이메일을 하는 적이 있는가?
- 9) 내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들, 페이스북과 같은 곳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과대포장을 한 적은 없는가?
- 10) 영적인 리더들을 향해 그들을 존경하지 않는 말들을 마구 내뱉은 적은 없는가?

5) 명령을 어기는 죄 (Sins of Commission)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을 행하는 죄가 바로 명령을 어기는 죄이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부터 마태복음 22:37-40에 나오는 주님의 대계명과 마태복음 28:19-20에 나오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

a. 십계명

1. 출 20:2-4a, 7-8a, 12-17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b. 대계명

1. 마 22:37-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c. 지상명령

1.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2)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d. 그 외의 가르침들

1. 말 3:8-10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2. 엎 5: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3. 엎 5:11-12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4. 계 2: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5. 고전 10:31-32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생각해 볼 질문들

- 1) 불건전한 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 2) 영화나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을 통해 부정한 것들을 시청하는 것을 스스로 타협한 적이 있는가?
- 3) 스스로의 신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습관이 있는가?
- 4)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한 사람이나 어떤 것을 우상화한 적이 있는가?
- 5) 도박이나 인터넷 상의 중독성있는 사이트를 접속해 본적이 있는가?
- 6)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것이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7) 다른 이들을 향해 불친절하거나 못되게 구는가?
- 8)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긴 적은 없는가?
- 9) 죄를 고백하기는 하지만 끊기는 어려운가?

6) 말씀을 무시하는 죄 (Sins of Omission)

a.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일을 무시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다. 살인이나 간음 같은 죄는 아닐지라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무시한 채 계속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라는 말씀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도 무시한다. 나에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라는 말씀도,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하라는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이 있다.

b. 약 4: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c. 요 15:4-5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d.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e. 벰전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f. 막 8:38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g. 마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h. 눅 12:47-48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i. 약 1:23-25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j. 약 5: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생각해 볼 질문들

- 1) 말씀과 기도의 정기적인 생활을 무시한 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 2)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또한 전도와 선교를 후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은가?
- 3) 내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 4) 영적인 리더들을 존경하고 후원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5) 매일의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나?
- 6) 십일조와 그 외의 헌금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 7) 나의 결혼과 가정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 8)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가?

7)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을 의지하는 죄 (Sins of Self-Rule & Self-Reliance)

a.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과 죄악된 습관들, 그리고 스스로 옳다 여기는 생각과 계속해서 씨름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세상은 스스로를 믿으라고 유혹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지배자들과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과 씨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님되시는 예수께 내 자신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기로 온전히 항복하기로 결정해야만 한다.

- i. 엡 6:12 --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 ii. 갈 5:17-18 --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 iii. 마 16:24-25 --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 iv. 롬 6:6 --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v. 롬 12:1-2 --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vi. 고후 10:5 --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vii. 요 12:24-25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 viii. 히 4:12-13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ix. 고후 12:9 --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x. 갈 2:20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생각해 볼 질문들

- 1)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앞에 내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2)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말씀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 3)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부분은 없는가?
- 4)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행동은 없는가?
- 5) 내가 섬겨야 할 사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 6)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들 가운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을 한 적이 없는가?